

편찬사



1982년 대한신경과학회가 창립된 이후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비록 대한신경과학회는 의협의 독립된 분과학회로는 늦게 출발하였지만 이미 1917년 호주 선교의사 Charles Inglis McLaren에 의해 우리나라에 신경학이 처음 도입된 이래 내과계, 정신과계 의사들에 의하여 진료, 교육,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어온 뿌리 깊은 의학 분야입니다.

대한신경과학회가 독립된 학회로 창립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선배님들의 선구적인 노력과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학회는 중추적인 학회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1999년 가을, 이사회에서 대한신경과학회 20년사를 편찬하기로 결정하고 7인으로 구성된 편찬위원회와 11인의 고문단, 10인의 집필위원을 선정하여 수차례 회의를 거듭한 후 이사회 회의록, 평의원회 회의록, 박충서 교수의 대한신경과학회 창립사를 비롯하여 각 위원회의 회의록과 여러 대학의 교실사, 보관된 사진 및 자료를 참고하여 태동기(1980년 이전), 창립기(1980 - 1985년), 성장기(1986 - 1995년) 그리고 도약기(1996 - 2002)로 시대를 구분하여 각 시기 마다의 발자취를 돌아보았습니다.

역사는 골동품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화된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읽어내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일은 지난 시대의 객관화된 일들을 거울삼아 현재의 좌표를 알고 더 나아가 미래를 내다보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년사가 향후 50년, 100년사를 기록할 때 중요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20년사를 편찬하면서 학회사무실에 보관된 자료나 사진 등이 너무나 부족한 점은 반성과 함께 우리 학회에도 기록과 보존의 풍토가 조성되어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편찬위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지만 자료의 부족과 명확하지 못한 기록 등으로 인해 기록에 다소의 오류가 있을 것으로 염려되나 이 점은 50년사를 기록할 때 검증되어지길 바라며 여러 회원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20년사 편찬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편찬위원, 집필위원과 많은 자료를 주신 박충서 원로 교수님께 깊은 사의를 표하며, 특히 원고 교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선우일남 전 이사장과 김주한 간사, 광영에 실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4월 1일
편찬위원장 서 정 규